



# 백범선생 '고난의 삶' 창무극으로 만난다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의 삶과 사상이 창무극으로 되살아난다.

민족의 큰 스승이자 어른인 백범은 조국광복과 자주독립, 남북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사)동편제관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는 광복 67주년과 김구 선생 서거 63주기를 맞아 창무극 '백범 김구'를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공연한다.

동편제관소리보존회는 가왕 송홍복을 거쳐

전남도립국악단 등 100명 출연

2막9장... 판소리·춤으로 표현

송만갑, 박봉술, 송순섭(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으로 이어지는 동편제 소리를 전승 계승하는 단체로 광주시립국악단과 함께 '열사 유관순', '불멸의 영웅 안중근' 등 역사속 인물들의 삶을 다룬 대작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지난해 목포와 서울에서 초연했던 '백범 김구'가 올하는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9월5일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9월 13일 오후 6시)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백범 김구' 공연은 국가보훈처와 광주지방보훈청, (재)서암문화재단, (재)유당문화재단 등이 후원했다.

이번 작품은 전남도립국악단원(창악부·무용

부·사물놀이팀·관현악 반주)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출연하는 메머드급 무대다.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박승희씨가 지휘봉을 잡으며 주인공 김구 역으로는 임방울국악재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춘택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김향순·양신승·박항미·윤종호·한규복씨 등이 주요 배역을 맡았으며 윤희철·김종필·이현기씨 등 지역 연극배우들과 박정환씨 등 청주시립무용단원들이 객원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예술총감독은 송순섭씨, 대본은 김병준씨, 연출은 강미진씨가 맡았으며 정철호(작장), 이강운(각색), 김경호(무용)씨 등이 작품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연출자 강미진씨는 "이번 창무극을 만들 때 강조한 것은 백범 선생의 나라 사랑과 민족애로, 그 속에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셨던 뜻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배경 영상을 한국적인 수묵화로 처리,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했던 백범의 뜻을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작품은 2막으로 구성돼 있다. '해주성', '궁', '지하포', '감옥', '길' 등 5장으로 구성된 1막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절규와 독립운동을 묘사한다.

'인연', '내이름은 김구', '동지여', '끝나지 않은 길'로 구성된 2막은 상해임시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백범의 삶과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꿈꿨던 그의 마지막 희망을 완성해 가는 남은자들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25-66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무극 '백범 김구' 공연 모습

### '백범 김구' 공연일정

29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

9월 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9월 13일 서울대 문화관 대극장

# 문화마루서 '안은미와 함께 춤을'

내일 힐링댄스 강좌·'보이스 코리아' 공연도

'주말에 아시아문화마루로 놀러오세요.'

옛 전남도청앞에 자리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 문화마루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현대무용가 안은미씨와 함께 직접 춤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안은미 컴퍼니와 함께하는 누구냐! 힐링댄스'다.

25일 오후 3시~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험 강좌에서는 청소년들의 춤을 소개로한 '사심 없는 댄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등을 영상과 안은미 컴퍼니의 공연으로 감상하며 30분 동안 다함께 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안은미씨를 비롯해 김혜

경·한신애·김기범씨 등 단원들이 출연한다.

안은미 컴퍼니는 지난 8월 광주에서 열린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에서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를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다. 참가비 무료.

같은날 오후 7시부터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의 '보이스 코리아' 출연진이 공연을 갖는다. 아시아문화마루가 지역민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어느 멋진 토요일' The 멋진 콘서트(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생방송 경연에 참여했던 정승원·



안은미

최준영·배근석·이은아·장은아씨다. 또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페이퍼 로드, 지적 상상의 길' 전시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터의 숲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강병인·튀정란·야마구치 노부히로 등 한·중·일·대만 4개국 디자이너 30여명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

# 오승윤 작품·고려청자 살기회

내일 예술의 거리서 '아트 경매'

'제 11회 예술의 거리 야외 경매'가 25일 오후 4시부터 예술의 거리 내 중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마련된 야외경매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대 산학협력단 '아트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주관

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오승윤 화백의 '물레'(20호·경매 시작가 2000만원)와 고려청자 백상감(40만 원)을 비롯, 광주대학생들의 주얼리 작품 등 70점이 출품된다. 출품되는 작품들은 예술의 거리 내



오승윤작 '물레'

광주아트샵 전시장에서 25일 낮 12시까지 전시된다. 문의 062-471-151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멕시코 크루즈비에가스 '양현미술상'

상금 1억원...올 비엔날레 참여작가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참여작가인 멕시코 출신 조각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Abraham Cruzvillegas·44)가 제 5회 양현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현미술상은 미술을 사랑한 경영인으로 알려진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08년 제정돼 국적과 장르 구분없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크루즈비에가스는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철학과 회화를 전공한 뒤 멕시코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영상 작업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성을 부각시킨 설치 작업을 해왔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광주극장 사옥 빈집에 거주하면서 도심 속 잊혀진 장소



리상과 예술이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자동건축 작업실·비효율적인 댄싱 워크숍·극장 뒤 무리'라는 작품을 내놓는다. 그는 또 지역 젊은 작가들과 예술의 경제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마련해 이를 담은 아티스트 북도 내놓을 예정이다.

크루즈비에가스에게는 상금 1억원이 수여되며 수상 후 3년 이내에 작가가 원하는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일 중외공원 음악회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대표 김정훈)은 25일 오후 7시30분 중외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3회 중외공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강숙자 오페라 라인팀, 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시립합창단 솔로 및 혼성중창팀이 흑인 영가 '성자의 행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OST중 'Tara's Theme', '시스터 액트'의 'Oh Happy Day'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들려준다.

또 이날 이야기손님으로는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나와 광복의 달 8월의 의미를 되새긴다.

중외공원 음악회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지역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꾸미는 순수 음악회로, 지난 6월에 시작해 매월 진행해오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 CBS 방송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2:00 ~ 13:30

○ 진행 광주순복음교회 임 석 명 목사



- \* 순복음선교회 선교사(파라과이)
- \* 여의도순복음교회 용산대교구장 역임
- \* (사)실업인선교회연합회 담임목사 역임
- \* 순복음영산신학원 교수역임
- \* 광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참여 방법

휴대전화 문자 #1031번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T. 062-376-8555-8666-8777

